

이 동네의 골목

Alley of this town

글. 신동욱 Shin, Dongok · 시인

「송천동」이란 제목의 시를 쓴 적 있다. 내 사는 동네다. 지하철역에 인접한 단독주택가다. 좁은 골목이 미로처럼 뻗었다. 2~4층 구옥(舊屋)이고 주거 형태는 대부분 다가구다. 골목 안쪽에는 1970~80년대식 양옥이 늘어섰다. 붉은 벽돌에 알뜰한 단열재를 넣은 벽이다. ‘초원의 집’을 본뜬 삼각형의 박공이다. 초록, 빨강, 파랑 원색으로 칠한 대문이 조금씩 빛 바랬다. 관공서 ‘박조건축’들이 우람한 근육을 과시하던 무렵, 도심의 뒷골목에는 아름다움이나 기능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듯 서양의 이미지를 본뜬 이런 집들이 지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한 지붕 세 가족’이 모여 천연덕스레 살림을 서로 보여주며 사람살이를 이어갔다. 귀신도 모를 곡진한 인연들이 집집마다 해묵은 때를 정겨이 쌓아올려 골목의 역사를 만든다.

내 사는 집도 그 골목 한편이다. 1980~90년대에는 이층 양옥을 3~4층으로 올려 다시 짓는 일이 흔했다. 오래전 집을 지은 장인께서는 집을 올리는 대신 지하에 방을 두 개 만들었다. 대문을 열면 작은 마당이다. 이웃집 벽과 어깨를 견지른 창고 건물 위엔 장독이 있었겠다. 속빈 콘크리트 블록에 철봉을 박고 빨랫줄을 걸었다. 옥상 텃밭을 일굴 화분이 가지런하다. 장독 자리에 커다란 화분 두 개를 놓고 넝쿨장미를 심었다. 아내와 나의 살림살이는 그렇게 시작됐다. 전에는 같은 구조의 집들이 나란히 네 채가 늘어서 있었다고 한다. 골목은 마치 제 꼬리를 먹어치우며 점이 되어가는 뱀처럼 이어지고 또 사라진다. 사생활이라야 무시로 틈입하는 이웃의 사연 사이에 섞여들었을 테고, 집밖에 내놓으면 먹고 놀고 배우는 일이야 절로 해결되던 시절도 있었다.

이 동네 역시 오래전부터 들끓었던 재개발 광풍을 피해가지 못했다. 밤사이 재개발을 두고 편이 갈린 양쪽에서 서로 번갈아 유인물을 던져두고 간다. 이웃 ‘푸른 선 미술학원’ 담벼락에는 벽보가 나날이 두께를 더해갔다. 냉정하게 쓰자면 낮은 집들이 이마를 맞대고 추레한 그늘을 만들며 그 아래 살림살이를 대놓고 전시하고 있는 풍광이다. 저녁 무렵의 귀로는 늘 그악스럽고 애처로운 악다구니다. 으스스한 골목을 찾아 끼리끼리 수군거리는 아이들의 눈빛은 불안해 보인다. 이웃집 싸우는 소리며 저녁상에 고기 굽는 소리까지 모두 작업실 창을 타고 넘어온다.

하지만 이 좁고 과밀한 골목에도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적당한 공유지대는 침묵으로 남겨두며 서로의 삶에 간섭하지 않는 애달음이 있다. 거창하게 말하자면 윤리나 질서 같은 것이 있다. 골목을 쓰는 일, 쓰레기를 모아두는 일, 길고양이며 버려진 짐승들을 돌보는 일 등에는 정하지 않았음에도 지키는 시간과 규칙이 있다. 저녁 뉴스가 끝날 즈음이면 시골 소읍이라고 해도 믿으리만치 고즈넉하다. 서로 노동과 피곤을 존중할 줄 아는 고요다. 골목 입구 고깃집에서 동네의 소문이 모였다 흩어지고, 그 사이에도 사진집이니 이발소니 생겼다 사라지곤 한다. 생태학자 알도 레오폴드는 ‘경쟁이 윤리적인 내용을 포함한 협동 체제를 만들고, 거기서 부분적으로 대체된 진보된 형태의 공생’이 환경윤리의 새로운 쟁점이 되리라고 오래전에 쓴 적 있다. 그러한 ‘진보된 형태의 공생’이 삶의 질서를 만든 것일 수도 있다.

동네는 근처에서 높이 솟아오른 ‘뉴타운’ 아파트 틈에 포위된 형국이다. 지하철역에서 가까우니 알짜배기 재개발구역인데 말이다. 근방은 일찌감치 재개발 광풍의 수혜지가 되었다. 지난 5년 동안 근방의 아파트들은 서울에서, 아니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동네 가운데 하나가 됐다. 이 동네는 여전히 치안은 멀고 행정은 남의 나라 일이다. 한편으로는 재개발에 대한 기대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는 관련 법규 때문에 집을 다시 올리거나 증축·개축하는 염을 내는 사람을 보기도 힘들다. 주민들은 대개 노인들이니 저 한 지붕세 가족 시절의 생기는 드물다. 동네 사람들은 서로의 삶을 침탈하는 소음과 불편함에는 애써 적당한 무관심으로 일관하며 자신을 돌본다. 대개는 동네만 벗어나도 불야성일 도

심의 불빛 사이로 기생하는 욕망의 완력에서 놓여난 사람들처럼 무기력해 보인다. 그들은 저마다의 사정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도시인의 윤리에 익숙해졌을 수도 있다. 불안하나마 장소를 나누어 점유하는데 최소한의 지혜를 발휘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이 동네를 사로잡는 고요함의 근거는 바로 이런 연유로 만들어진 불안정한 평형 상태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자유에 대해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다. 자유라는 개념은 경쟁원리와 그 합리성까지를 내포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고 말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자유’라는 단어는 형용모순이다. 한 인간의 삶에 대한 개별적인 앎을 전제로 하는 원칙과 제도는 망상에 가까움에도, 자본주의는 개별성과 각자성의 원칙을 짓과 꼴로 포장한다. 집합적인 단위의 이미지로 다가오는 도시와 동네라는 말은 이런 연유에서 ‘자유’라는 단어와 충돌을 일으키는 듯도 하다. 만일 우리를 둘러싼 공간들이 어떤 모순에 부딪혔다면, 그 때문에 우리 삶의 길이 꼬이고 기분이 언짢아진다면, 그때 나는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 이런 문제에 대해 오래 생각할 때가 있다. 그것이 시가 되고 문학이 된다면 ‘제발, 이 동네를 그대로 두시오’와 같은 케케묵은 낭만적인 생각만큼은 쓰지 않으려고 주의를 기울였다.

글을 쓰는 일이 업이다 보니 자연스레 내가 사는 집에 대한 생각들이 행간에 스민다. 낭만적인 회감과 고즈넉한 묘사를 일삼지는 않았다. 내가 저 ‘뉴타운’에서 결혼 이후의 삶을 시작했다면 나는 다른 주제를 다른 형식으로 썼을 것이다. 보이지 않게 저 혼자 들끓고 있는 이 동네의 골목을 바라보면서 내가 아무런 옳고 그름도 정의하지 않는다면, 문장은 뒤틀려서 내가 쓰는 글은 회고적인 낭만으로 역한 감각만 잔뜩 늘어놓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낮은 지붕, 해바라기하는 노인들, 그 곁에서 빛을 받고 있는 장독과 담장…… 이런 ‘반동적인 낭만’으로 포장한 시를 쓰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니 우리를 내버려두라’고 쉽게 쓰고 고양된 윤리 감각을 한껏 뽐낼 수도 있다. 마치 이 동네에 안 산다는 뜻이 말이다. 아무런 의무도 제시하지 않고 아무런 희생도 스스로 요구하지 않는 삶의 태도는 문면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 동네는 ‘문장의 진실’을 깨우쳐주는 것만 같다.

사람은 앞뒤좌우 사방에 위아래를 더한 좌표를 그려두고 공간을 인식한다. 앞쪽과 오른쪽에 나온 가치를 둔다. 뒤쪽과 왼편은 무언가 뒤쳐지고 빼딱한 방위로 여긴다. 위쪽은 지금보다 나은 가치나 미래와 연관된다. 아래쪽은 음습하고 내쳐진 곳, 이를테면 지옥과 같은 이미지로 표상된다. 아침이면 아내와 함께 딸 아이 손을 잡고 언덕 위쪽 아파트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짧은 산책을 나선다. 아내와 나는 우리가 사는 집이 있는 동네를 뒤쪽, 아래쪽이라고 말하는데 아이는 그렇지 않은 모양이다. 우리가 사는 공간을 사랑하는 만큼 아내와 나는 스스로 정체성을 왼쪽으로 규정하곤 하는데 아이는 아직 그렇지 않은 모양이다. 공간에서 추동된 감각과 거기 들러붙은 가치 지향이 한데 작동하는 어른의 고정관념에 물들지 않았기 때문이겠다.

이 골목에 세를 들어 산 이후에 내 문장이 마주친 고민은 이것이다. 삶을 삶대로 바라보는 것, 그 가운데 옳고 그름을 정의하는 것, 그런 연후에 의무와 희생을 스스로 요구하는 것. 이 동네를 살면서 나는 추상적인 당위에 머무르지 않으면서도 삶을 삶대로 쓰는 법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다. 차이를 도외시키고 무관심으로 남겨두는 그 아찔한 ‘공유지대’에 삶을 끼워 넣을 방법은 무엇일까 고민하기 시작한 것일 수도 있다. 여전히 어려운 문제다. 아내와 나는 이 즈음이면 겨울을 따뜻하게 나는 일에 골몰한다. 어느 사이 아이는 또 훌쩍 자란다. 장미는 새로 피어난다. 골목 어디선가 오래 혼자 앉았던 노인이 유명을 달리고, 그 사이 새로 태어난 아이 울음소리가 고요한 밤 골목을 가득 채우겠다. 우리의 아이가 그러는 것처럼 말이다. 간밤에 비가 오더니 바람이 차다. 이제 겨우 가을이려나 보다.